

데일리안

인천시, 온실가스 감축 위해 탄소포인트제 실시

입력 2023.03.08. 오전 10:23

年 최대 상업부문 40만원·개인부문 10만원·자동차 10만원 등 지급

[데일리안 = 김성웅 기자]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에너지 절약, 탄소배출 절감, 현금 환급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.

인천시는 8일 '2045년 탄소중립' 실현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탄소중립 바로 알기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.

탄소포인트제는 최근 1~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에너지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 사용량을 비교, 5%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.

참여 분야는 단독·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, 학교,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뉜다.

개인부문은 연 최대 10만원, 상업부문은 연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(<https://cpoint.or.kr>) 또는 군·구 환경기후 담당 부서에 방문, 신청하면 된다.

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비사업용 휘발유·경유·LPG 승용·승합(12인승 이하)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
시는 또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탄소중립 인식전환 및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활용한 탄소중립 바로 알기 캠페인도 시작한다.

캠페인은 매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선정,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.



©

김성웅 기자 (lyeksw53@dailian.co.kr)

Copyright © 데일리안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19/0002690259>